

현안과 과제



소득 4만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한 대응전략의 모색

-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 요약 >

■ 개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의 질적 수준도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최근에서야 선진국 기준의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2만 달러대를 간신히 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신흥공업국들이 우리 경제를 추월하여 경제적 위상(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저속 주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성과 목표 하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예측한다. 응답자의 65.2%가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3.5%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2%대(응답자 평균 2.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국민소득 전망)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 3만 5,000달러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경제의 위상 전망) 10년 후 한국 경제는 현재 경제력 (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현 경제 규모(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5위인데, 10년 후에는 현재 경제력 수준(G15)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이 22.2%를 기록하였다.

(대내외 불안 요인 전망)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 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가장 많은 44.4%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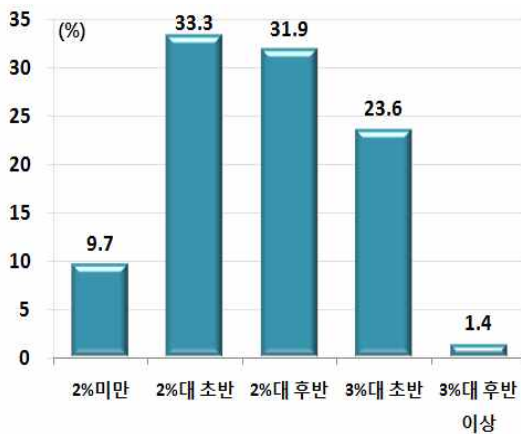
(경제발전전략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 전망)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쳤다.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6 : 4」, 수출과 내수가 「5 : 5」의 비율로 나타났다.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장』 61.4%, 『분배』 38.6%로 성장이 분배를 다소 상회하였다. 한편, 『수출(49.3%)』과 『내수(50.7%)』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역할)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가 5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까지 포함할 경우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주력 산업의 한계와 신성장산업의 필요성)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62.5%)』을 응답하고 있다.

<10년 후 잠재성장을 전망>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 가능 여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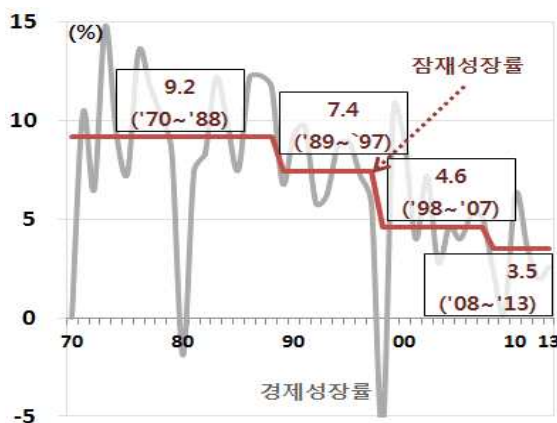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전략의 모습은 첫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고 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1. 개 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성장의 질적 수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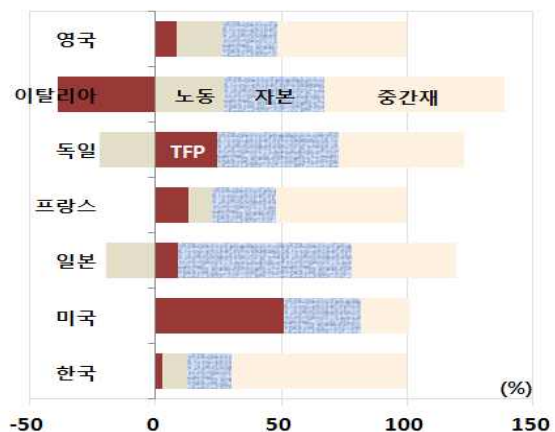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하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6%에서 이후 3.5% 수준 까지 하락함
 - 2012년 연구원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3.8% 이었으나, 이번에 2008~2013년으로 확장하여 추정한 결과 3.5% 수준으로 평가됨
- (성장의 질적 수준 악화) 효율성이나 자본스톡보다는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제 성장 구조 지속
 - 한국의 2000년대(2000~2010년) 기간 동안 생산 요소 중 총산출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은 요인은 중간재(70.0%)이며, 다음으로 자본(17.3%), 노동(10.2%)의 순서이고, 총요소생산성(TFP)의 산출 기여율은 2.6%에 불과함¹⁾
 - 한편, 2001~2005년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를 제외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의 산출 기여율 평균치는 21.2%에 달함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²⁾

<산출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율(01~05년, 한국 01~10년) 추이>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중간재 = 원재료 + 에너지 + 서비스.

1) EU-KLEMS 및 한국생산성본부.

○ 선진국 추격의 지연과 경제적 위상의 후퇴

- (선진국 추격의 지연) 한국의 1인당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는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15년 만인 2010년에서야 2만 달러대에 안착
 -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1995년 1만 1,735달러)한 이후 2만 달러 시대로 완전히 진입(2010년 2만 562달러)하는 데에는 15년이 소요
 - 이 기간중 두 번의 경제충격(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으로 9년 동안 국민소득이 후퇴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충격이 없었다면 6년 내외의 기간 만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됨³⁾
 - 이러한 국민소득의 후퇴는 경제성장률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⁴⁾
 - 또한,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5,000 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2016~2017년경에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⁵⁾되고는 있으나,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이후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의 상시화'가 예상되고 있고 한국경제가 가지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 예상치 못한 글로벌 충격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나 환율 상승이 재연될 경우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적 위상의 후퇴) 한국 경제 규모(명목GDP)의 세계 순위는 2004년 11위를 정점으로 후퇴하여 현재 15위를 기록
 - 한국 경제규모(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970년 38위(세계GDP 비중 0.3%)에서 2013년 현재 15위(세계GDP 비중 1.6%)로 상승
 - 2004년 11위를 기록한 적도 있으나 이후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 대규모 경제권들이 우리를 추월하면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5위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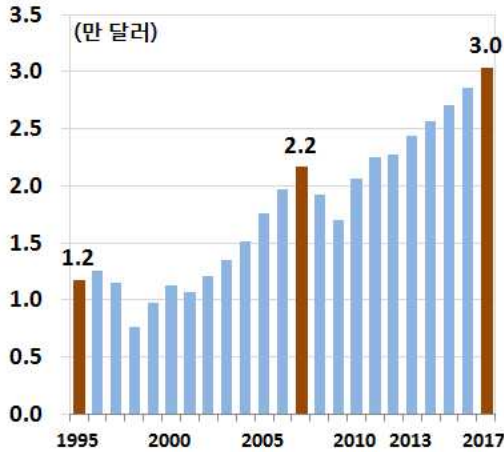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VIP REPORT, 14-1(통권 552호).

3) 1997~2002년의 기간 동안에는 1996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미달하였으며, 2008~2010년의 기간 동안에도 2007년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4) 예를 들어 2008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대비 약 11%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명목경제성장률이 +5%p의 증가효과를 가진 반면, 환율변동은 -16%p의 감소효과를 가짐.

5)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경제주평, 14-02(통권 573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전망>



자료: 1) 2013년 이후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2) 2012년 이전은 한국은행.

<한국 경제규모(명목GDP) 세계 순위 및 비중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UN 및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대한 필요성 증대

- 한국 경제의 동력이 상실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과 다른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최근 정부도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소득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같은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정부는 연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잠재성장률 4%의 경제적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음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추진 방향은 ① 공공 부문 개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②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성장, ③ 창의성,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으로 이해 될 수 있음
- 민간 부문에서도 이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전략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의 새로운 전략 모색 움직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설문조사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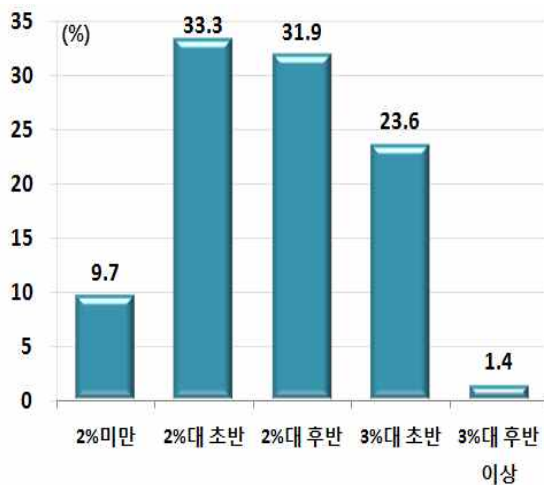
- 조사기간 : 2013년 12월 18일 ~ 26일
- 조사방법 : 설문지 직접 기입식
- 조사대상 : 경제전문가 72명 (정출연 27명, 민간연 27명, 협회/단체 10명, 기타 8명)

2.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 전략(설문조사 결과)

- (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5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순위는 (G11~G15)으로 응답
-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2%대』가 전체의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특히, 세부 구간별로는 『2%대 초반』을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대 후반』의 응답 비율이 31.9%를 기록
 - 응답 구간별 중위값을 뜻수로 가중 평균할 경우 10년 후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2.8%로 추정
- 『10년 후 예상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3만~3.5만 달러(62.5%)』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
 - 다음으로는 『3.5만~4만 달러(19.4%)』, 『2.5만~3만 달러(18.1%)』의 순서로 나타남
 - 그러나 『4만 달러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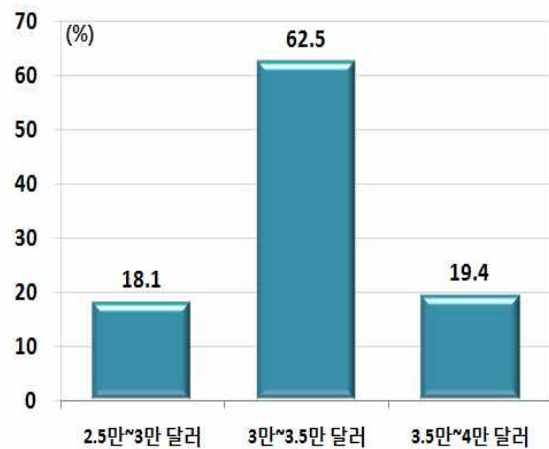
- 『1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G15)경제력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 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7%를 차지
 - 다음으로 『경제 강국으로 진입 - G10 이내 진입(22.2%)』, 『현재(G15) 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하락 - G16~G20(11.1%)』 의 순서임
 - 한편,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저성장 국가로 전락 - G20 밖(4.2%)』, 『경제 대국으로 부상 - G7 진입(2.8%)』 은 소수로 나타남

<10년 후 잠재성장률 전망(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0년 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전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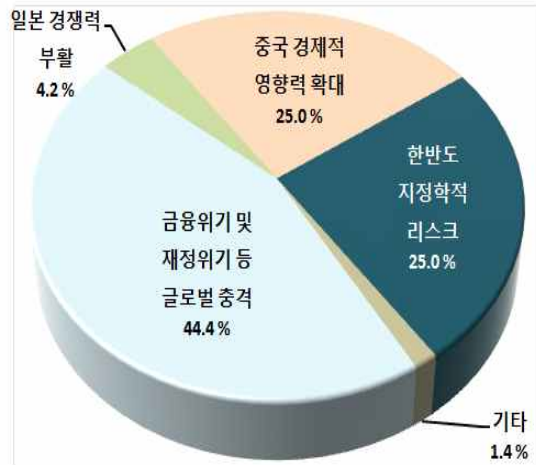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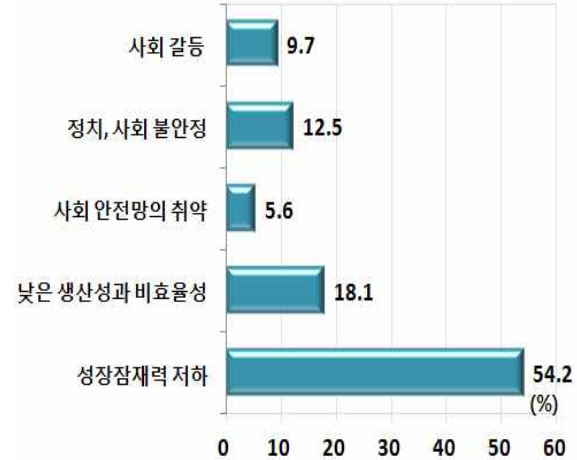
- (경제 대국화를 가로막는 대내외 불안 요인)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를 지목
-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44.4%)』 이 가장 많이 응답
 - 이외 『중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25.0%)』 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25.0%)』 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함
 - 반면 『일본 경쟁력의 부활(4.1%)』 은 소수의 의견에 그침

-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내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의 항목이 다수를 차지
 - 다음으로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18.1%)』, 『정치, 사회 불안정(1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사회갈등(9.7%)』, 『사회 안전망의 취약(5.6%)』도 10% 미만의 응답 비율을 기록함

<경제대국화의 대외적 걸림돌(설문조사)> <경제대국화의 대내적 걸림돌(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향후 바람직한 경제 발전 전략

-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
 - 조사 결과 『현재 한국 경제는 개도국의 추격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조사 대상자의 60.6%가 한국의 『전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라고 응답
 - 반면, 『아직 중진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급한 시각이다』 라는 응답 비율은 28.2%에 그침

- (정부의 역할) 정부 부문의 경제적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약 86.1%가 현재보다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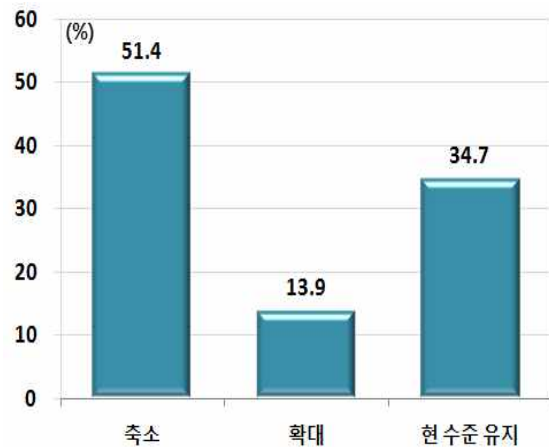
- 『향후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장기적인 비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소』 해야 한다가 51.4%로 다수를 차지
- 한편, 『현 수준 유지』 가 34.7%로 조사되었으며 『확대』 해야 한다가 13.9%로 낮은 비율을 기록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약 86.1%가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 가능성(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향후 바람직한 정부부문의 경제적 비중(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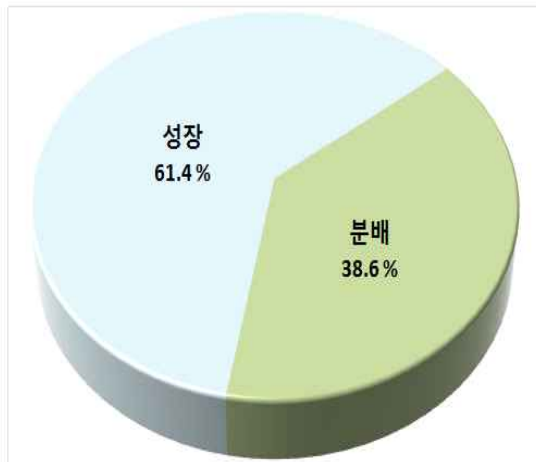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성장과 분배중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장』 과 『분배』 가 약 6:4의 비율로 응답

- 『성장(61.4%)』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분배(38.6%)』 에 대한 배율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성장과 분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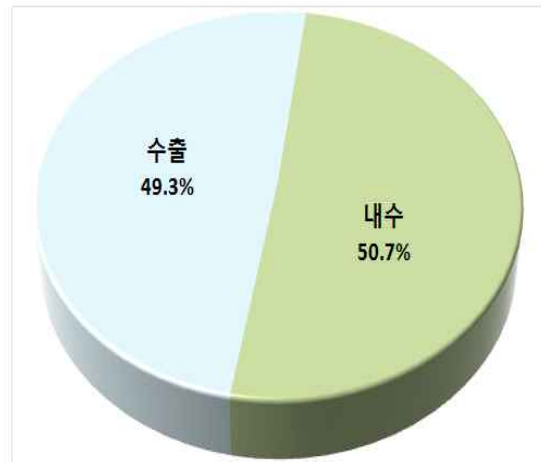
-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수출과 내수중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출』과 『내수』가 약 5:5의 비율로 응답
 - 『수출(49.3%)』과 『내수(50.7%)』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조사됨
 - 이는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 다른 한편으로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출’과 ‘내수’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향후 경제발전전략에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향후 경제발전전략에서 수출과 내수의 우선순위(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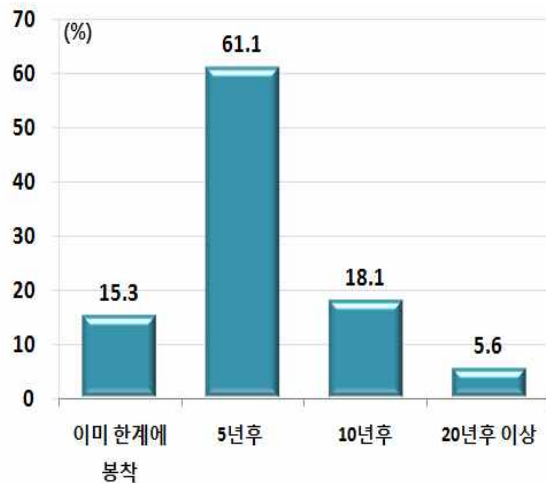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
 - 한편, 『이미 한계에 봉착』되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응답 비율도 15.3%에 달하였으며,
 - 향후 『10년 후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율은 18.1%, 『20년 후 이상』을 응답한 비율은 5.6%에 그침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62.5%)』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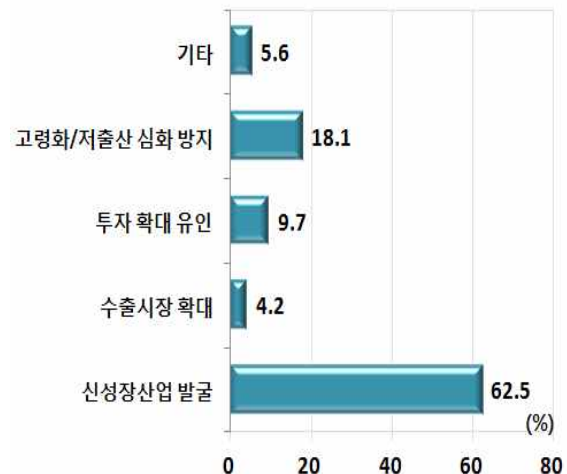
- 다음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심화 방지(18.1%)』,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9.7%)』, 『수출시장 확대(4.2%)』의 순서를 나타냄
-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의 1차적인 투입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나, 경제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투자의 수요처 또는 투자 동기(motive)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력 산업의 한계 봉착 시기(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설문조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첫째, 4만 달러 시대로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조로화(早老化)로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설문 응답자의 65.2%가 10년 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대(응답자 평균 2.8%)로 전망
 - 또한 62.5%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

- 한편 가장 큰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을 지목하고 있는데, 4만 달러 달성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강화도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며,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둘째, 경제 강대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10년 후에도 G10 이내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응답자의 59.7%가 현재 경제력(G15)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G11~G15) 할 것으로 전망함
 - 나아가 응답자의 75%가 G10 이내로의 진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
- 21세기는 선진국보다는 국토면적과 인구규모가 큰 경제대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가 급락한 것은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의 대규모 경제권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며, 최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일컬어지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투자부진 및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설문 문항 중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54.2%)』가 경제대국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내 요인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 수

요처 및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경제 통합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 대국화의 대외적 걸림돌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25.0%)』도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도 요구됨

셋째,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 전문가들의 과반수 이상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 형으로의 전략 전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비율은 28.2%에 그침
 - 나아가 설문 결과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략 전환 성공의 여부와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구체적 각론에서는 ‘성장과 분배’ 간, ‘수출과 내수’ 간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설문 결과 바람직한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가 「6 : 4」, 수출과 내수가 「5 : 5」의 비율로 응답함
 - 이는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고 ‘21세기 한국형 경제모델’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보다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넷째, 공공 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

-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

로 나타남

- 한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축소』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1.4%로 나타남
- 또한 『현 수준 유지』도 34.7%로 조사되어 86.1%가 최소 현재 수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 같은 정부 부문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다섯째, 대규모 투자의 수요처가 되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주력 산업은 5년 후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 『5년 후』를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함
 -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2.5%가 『신성장산업 발굴』을 응답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의 원천이 투자를 통한 자본스톡의 확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 조속히 부상해야 할 것임
 - 제조업 부문에서 신기술·신성장산업의 조기 발굴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하지만, 아직 고도화되지 못해 오히려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 내 고부가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임

【별첨】 설문 조사 결과

문1.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약 3%대 중후반 수준, 선진국들의 경우 1~2%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 | 2% 미만 | 2%대 초반 | 2%대 후반 | 3%대 초반 | 3%대 후반 이상 |
|---------|-------|--------|--------|--------|-----------|
| 전체 | 9.7 | 33.3 | 31.9 | 23.6 | 1.4 |
| 정부출연연구소 | 14.8 | 37.0 | 25.9 | 22.2 | 0.0 |
| 민간연구소 | 3.7 | 18.5 | 44.4 | 29.6 | 3.7 |
| 협회/단체 | 10.0 | 70.0 | 10.0 | 10.0 | 0.0 |
| 기타 | 12.5 | 25.0 | 37.5 | 25.0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2.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4,000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예상하는 소득수준은?

| (%) | 2.5만~3만 달러 | 3만~3.5만 달러 | 3.5만~4만 달러 | 4만 달러 이상 |
|---------|------------|------------|------------|----------|
| 전체 | 18.1 | 62.5 | 19.4 | 0.0 |
| 정부출연연구소 | 14.8 | 70.4 | 14.8 | 0.0 |
| 민간연구소 | 14.8 | 63.0 | 22.2 | 0.0 |
| 협회/단체 | 30.0 | 40.0 | 30.0 | 0.0 |
| 기타 | 25.0 | 62.5 | 12.5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3. 10년 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경제 대국으로 부상(G7 진입) | 경제 강국으로 진입(G10 이내 진입) | 현재(G15)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상승(G11~G15) | 현재(G15)경제력 수준보다 소폭 하락(G16~G20) |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저성장 국가로 전락(G20 밖) |
|---------|-------------------|-----------------------|--------------------------------|--------------------------------|------------------------------|
| 전체 | 2.8 | 22.2 | 59.7 | 11.1 | 4.2 |
| 정부출연연구소 | 3.7 | 18.5 | 59.3 | 11.1 | 7.4 |
| 민간연구소 | 0.0 | 11.1 | 70.4 | 14.8 | 3.7 |
| 협회/단체 | 10.0 | 50.0 | 40.0 | 0.0 | 0.0 |
| 기타 | 0.0 | 37.5 | 50.0 | 12.5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4. 현재 한국 경제는 개도국의 추격형 경제발전 전략에서 선진국의 선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 | 전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아직 중진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급한 시각이다 | 모르겠다 |
|---------|-------------------|---------------------------|------|
| 전체 | 60.6 | 28.2 | 11.3 |
| 정부출연연구소 | 69.2 | 19.2 | 11.5 |
| 민간연구소 | 48.1 | 40.7 | 11.1 |
| 협회/단체 | 70.0 | 20.0 | 10.0 |
| 기타 | 62.5 | 25.0 | 12.5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5.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 글로벌 충격 | 일본 경쟁력 부활 | 중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 |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 기타 |
|---------|----------------------|-----------|---------------|--------------|------|
| 전체 | 44.4 | 4.2 | 25.0 | 25.0 | 1.4 |
| 정부출연연구소 | 51.9 | 0.0 | 14.8 | 33.3 | 0.0 |
| 민간연구소 | 25.9 | 7.4 | 44.4 | 22.2 | 0.0 |
| 협회/단체 | 70.0 | 0.0 | 10.0 | 10.0 | 10.0 |
| 기타 | 50.0 | 12.5 | 12.5 | 25.0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6. 향후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대내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 | 투자부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 | 사회 안전망의 취약 | 정치, 사회 불안정 | 사회갈등 |
|---------|-------------------------|--------------|------------|------------|------|
| 전체 | 54.2 | 18.1 | 5.6 | 12.5 | 9.7 |
| 정부출연연구소 | 59.3 | 7.4 | 7.4 | 11.1 | 14.8 |
| 민간연구소 | 51.9 | 22.2 | 3.7 | 14.8 | 7.4 |
| 협회/단체 | 50.0 | 30.0 | 10.0 | 10.0 | 0.0 |
| 기타 | 50.0 | 25.0 | 0.0 | 12.5 | 12.5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7.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성장 | 분배 |
|---------|------|------|
| 전체 | 61.4 | 38.6 |
| 정부출연연구소 | 57.7 | 42.3 |
| 민간연구소 | 59.3 | 40.7 |
| 협회/단체 | 70.0 | 30.0 |
| 기타 | 71.4 | 28.6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8. 미래를 대비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느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수출 | 내수 |
|---------|------|------|
| 전체 | 49.3 | 50.7 |
| 정부출연연구소 | 54.2 | 45.8 |
| 민간연구소 | 33.3 | 66.7 |
| 협회/단체 | 70.0 | 30.0 |
| 기타 | 62.5 | 37.5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9. 현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의 한계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 (%) | 이미 한계에 봉착 | 5년 후 | 10년 후 | 20년 후 이상 |
|---------|-----------|------|-------|----------|
| 전체 | 15.3 | 61.1 | 18.1 | 5.6 |
| 정부출연연구소 | 25.9 | 63.0 | 11.1 | 0.0 |
| 민간연구소 | 3.7 | 66.7 | 18.5 | 11.1 |
| 협회/단체 | 20.0 | 60.0 | 20.0 | 0.0 |
| 기타 | 12.5 | 37.5 | 37.5 | 12.5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10. 향후 정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장기적인 비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축소 | 확대 | 현 수준 유지 |
|---------|------|------|---------|
| 전체 | 51.4 | 13.9 | 34.7 |
| 정부출연연구소 | 51.9 | 18.5 | 29.6 |
| 민간연구소 | 40.7 | 11.1 | 48.1 |
| 협회/단체 | 50.0 | 10.0 | 40.0 |
| 기타 | 87.5 | 12.5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문1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 (%) | 신성장산업 발굴 | 수출시장 확대 | 투자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심화 방지 | 기타 |
|---------|----------|---------|---------------------|--------------------|------|
| 전체 | 62.5 | 4.2 | 9.7 | 18.1 | 5.6 |
| 정부출연연구소 | 63.0 | 3.7 | 7.4 | 18.5 | 7.4 |
| 민간연구소 | 63.0 | 3.7 | 11.1 | 18.5 | 3.7 |
| 협회/단체 | 60.0 | 0.0 | 10.0 | 20.0 | 10.0 |
| 기타 | 62.5 | 12.5 | 12.5 | 12.5 | 0.0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